

웅비(雄飛)를 꿈꾸며

1988년 개교 후 세 번째 겨울을 맞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가슴 벅차오고, 설레임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황해벌을 일구어 그 곳에 씨앗을 뿌리고, 모진 생명력으로 자라난 새싹들을 즐거운 보람으로 가꾸어 온 지 3년, 이제 모두 의연한 거목으로 자라 알알이 열매 맺혀 있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더 기쁜 것은 그 새싹과 더불어 자라온 우리들의 뜻이 모여 인항인의 교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겁(千劫)을 당당히 잊고 지켜 나갈 우리들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인항인의 자람이요 큰 기쁨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며 즐거움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룸을 허용하지 않으며, 좋은 전통 역시 출발점은 보잘것 없습니다. 첫 발을 딛고 태산에 오를 수 있으며, 지류가 모여야 심연의 향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히 첫 발을 딛을 수 있고, 전통 없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창조적 산고(産苦)를 치루어 왔고, 그리고 끝내는 이겨 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류가 모여 이루어 낸 힘이 천지를 진동 시키듯이 젊은 뜻으로 뭉쳐져 더욱 울곧게 자라 갈 우리의 전통을!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던 질척한 황해벌에 사천여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 이루어 낸 승리는 참으로 값집니다. 인항 고등학교의 개교는 부둣가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자기 희생의 결과입니다. 근로자들의 삶은 결코 밝았거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다음 세대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가난과 어둠은 거부합니다. 배우지 못했기에 당해야 했던 칠혹같은 어둠을 다시 다음

교장 한성완



세대를 선택하고,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지가 모여 학교 설립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러한 사천여 노동자들의 기운이 황해벌 한가운데로 내려 앉아 교사(校舍)를 이루고, 그들의 정신은 해룡의 기상과 함께 학교 전체로 흠어져 교혼(校魂)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의지와 정신에 진심으로 머리 숙이며, 인항의 역사와 함께 영원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교육으로써 인격이 완성되고 인간이 갖는 모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으며, 주체적 자아의 인식과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개인을 발전·완성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며, 그 지혜는 칠혹같은 어둠 속에도 갈 길을 열어주는 등불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교육은 우리 사회 발전의 중핵이었으며 지금 혼탁한 세월을 슬기롭게 넘길 지혜 역시 교육이 말아야 할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자취는 길이 인항의 역사와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인항의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단지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며, 출발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인항 발전의 주체는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항의 주인이며, 인항을 짊어지고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지역 사회의 모든 학교와 나란히 배움터로 터 잡아가고 있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배움터가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있어 이곳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격이 함양되고 여러분의 개성이 계발되어 보람되고 멋진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 참 인간의 실현과 나라 발전의 동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